

바다는 부른다

나 운 영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말에는 어(漁)란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업·공업·상업이란 말은 줄곧 사용되어 왔지만 어업이란 말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어째서 바다에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만 해도 무엇인지 이상하다.

<바다>하면 만경창파(萬頃蒼波)―일엽편주(一葉扁舟), 갈매기-등대-수영 등을 연상케 되는데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아무리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을 자랑한들 경작할 농토가 부족하니 농업에 전적으로 매달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만 외칠 수도 없고 또한 지하자원이 풍부하지도 못하니 공업에 의존할 수도 없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살 길은 바다에 있다고 하겠다.

자고로 바다를 정복한 나라는 세계를 정복했다. 영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또한 그렇지 않았는가….

바다는 부른다/저 파도 소리를 들으라/동방의 정기가 뭉친 곳/아침해 먼저 듣는 우리 강산/
푸른 바다를 끼고 안고 열렸나니/긴 역사 책장마다 물결소리 들린다

바다는 부른다/저 파도 위를 보아라/무역의 개척자 장보고/승리의 만대 영웅 이 충무공/
역센 이겨레 자랑스런 우리 자취/그대로 산 기록이 저 바다에 적혔다

바다는 부른다/저 파도 헤치며 나가자/보배로 가득 찬 세 바다/기름진 살림살이
저기 있다/넓은 바다는 거침없는 우리 무대/세계와 손을 잡고 새 이상을 이루자

이은상 작사, 박태현 작곡인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애착을 갖게 하는 동시에 어업(수산업)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무역의 개척자 장보고/승리의 만대 영웅 이 충무공/보배로 가득 찬 세 바다’란 시귀가 우리를 깨우쳐준다.

이렇듯 고마운 바다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려운 문제, 돌발 사건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있으니 곧 <고기잡이와 태풍>, <고기잡이와 남북 사건> 등등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바다를 정복하려면 고난과 시련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이에 도전해야 한다.

한국인 33명 탄 트롤선 침몰/온두라스 선적 호산나 1호/"SOS" 직후 전원 실종/
캐나다 동부해역... ..악천후로 수색 못해

11월 18일 조간신문은 또다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악천후 속 시험 조업을 강행한 첫 출어였는데 선원들이 참변을 당해 선원 가족 80명이 내 아들, 내 남편을 부르다 실신·통곡했다니 남의 일만 같지 않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신문에 <영농-영어(營漁)의 과학화 합리화 실천을>이란 기사를 읽으면서 새삼<영어>란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인 것만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농어촌이란 말을 쓸 때에 대개 농촌에 중점을 두고 말할 뿐 어촌은 곁다리로 이에 끼어든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형편이니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 즉 농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오로지 <바다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분야를 개척해 나아가야겠다.

국립국악원 발행의 <한국음악—민요편>을 보면 총 110곡 중에 뱃놀이에 관한 노래는 더러 있으나 고기잡이에 관한 노래는 전라도의 <거문도의 뱃노래>와 제주도의 <해녀 뱃노래·멸치잡이 노래>밖에는 없다.

즉 거의 대부분이 산노래·강노래·사랑가·이별가·타령·아리랑 등인데 앞으로 우리 민요는 제주도 민요와 같이 노동요가 많이 만들어져야겠고 특히 고기잡이 노래, 새 어민의 노래, 바다의 노래 등이 널리 불리워져서 우리 민족이 영어
鰲漁·바다로의 진출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 한 해가 저문다.

87년의 정초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모歲幕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올해의 정초에도 우리들은 언제나처럼 많은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했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모두 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헤아릴 길은 없다.

듣자 하니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도 갈수록 줄어들었다고 한다. 멀리는 동해의 대화퇴까지 어선이 가고, 또 멀리 동지나해까지 어선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옛날처럼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들린다. 다행히 길러 잡는 어업의 양식들, 김, 미역을 비롯, 굴, 피조개, 다시마 등은 매년 생산량이 늘어 우리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꾸며준다니 마음 든든하기는 하다.

정묘년 한 해가 저물어감에 있어 전국의 어민들이 동서남해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 정초의 계획대로 소득이 이루어지고 또 내년에도 동서남해의 바다에서 풍요로운 어장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인 잘 사는 어촌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당에 즐거웠던 일과 괴로운 일을 회고하면서 「우리의 살 길은 바다에 있다」는 말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된다.

<월간「새어민」, 1987.12.>